

Vol.10 $\frac{11}{12}$
2017

부산 체육



BUSAN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40,000
TOTAL NEW
JOBS CREATED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49
TRILLION KRW
IN REVENUE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
TRILLION KRW
IN REVENUE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금만 다가서면 보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먼 이야기 만은 아닙니다.
대규모 경제 상승효과와 대폭 늘어나는 일자리, 5천만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를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BUSAN
WORLD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상최대규모 축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행사기간

6개월의 장기 행사를 통한
홍보효과로 부산은 세계속의
유명 관광도시가 될것 입니다.

Contents



PEOPLE & PEOPLE

- 04 이달의 칼럼 _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6 파워 인터뷰 01 _ 유재진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 08 파워 인터뷰 02 _ 전광열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PANORAMA

- 10 제98회 전국체육대회
- 16 제6회 부산초·중학생 육상경기챌린지대회
- 18 제98회 전국체전 학교장 간담회
- 20 진천선수촌 개촌식
- 22 전통스포츠보급
- 24 임시대의원총회
- 26 부산시민체육대회
- 30 평창동계올림픽
- 32 부산체육 세미나

PANORAMA

- 34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36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38 구·군체육회 소식
- 46 회원중목단체 소식

NEWS BRIEFING

- 56 뉴스브리핑

TRAVEL & SPORTS

- 58 겨울여행지_강원도 평창군

FOOD

- 62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_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부산체육 2017 11+12 통권 10호 부산체육인은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염원합니다.

발행일 | 2017년 12월 1일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0호) 발행인 서병수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서원택, 하나근, 김민지

발행처 | 부산광역시체육회_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 Tel 051.500.1300 / 500.7900 Fax 051.500.1309 / 500.6306

디자인·인쇄 | 한글그래픽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41(범천동) Tel 051.632.7842 www.hanguel.co.kr

이달의 칼럼

부산시 체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4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 석 봉

체육시설 확충의 시기

부산시는 체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물리적 기반인 체육시설 건설을 구덕운동장과 사직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부산아시아게임 개최와 연동하여 2001년 초반까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먼저 구덕운동장은 1928년 부산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되었다. 해방 후 부산시에서 인수하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 6월 동물원 및 경기장으로 개장하였고, 1971년 3월 실내체육관, 1973년 8월에 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 1981년 6월 수영장 개장, 1982년 8월에 전천후 육상경기장이 개장되었고, 1982년 구덕운동장으로 개칭되었다.

부산종합운동장은 구덕운동장의 노후화와 경기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79년에 종합운동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에 착수하였다. 실내체육관(1985년 8월), 야구장(1985년 10월), 체조경기장(1986년 1월), 종합실내훈련장(1987년 11월), 테니스장(1988년 7월), 수영장(1989년 2월), 궁도장(2000년 11월), 론볼링장(2001년 5월), 그리고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2001년 9월) 순으로 건립되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성공 개최

체육시설 구축을 계기로 부산시의회가 1993년 4월, 제14회 아시안 게임(2002년)의 부산 유치를 공식 제의함에 따라, 부산시의 부산 아시안 게임의 유치 승인 신청서 제출(1993년 8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신청서 검토·확정 및 대정부 건의(1993년 9월), 그리고 정부의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승인(1994년 2월)이 이루어졌다. 정부 승인 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부산아시아게임 유치위원회와 부산시는 1995년 2월 7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1995년 5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경쟁국들을 제치고 제14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되었다.

7년여에 걸친 대회개최 준비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은 합심하여 부산시 최대 행사인 제14회 부산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부산시는 더 큰 목표인 부산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체육대회 예산지원 확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부산은 2004년 전국체육대회에서 13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됨에 따라,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100억 원대로 체육예산 확충과 시체육회 실업팀 확대개편 등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중위권으로 일정부분 도약하였으나 성적은 예산확충 대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부산시로부터 부산지역 전문체육 육성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의뢰받아 부산지역의 체육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부산시 전문체육 육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의 종목별 전국체전 성적과 지난 3년간(2007년~2009년)의 종목별 지원금을 기초로 하여 지원금이 점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산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종목에서는 예산대비 저조한 성적을, 일부 종목에서는 예산대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부산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겨뤄 이루어낸 성적이라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부산시민들은 돈으로 유명 선수를 스카우트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보다 시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생활체육에 투입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2012년 부산시 체육진흥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의거 법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부산 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2013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부산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본 과업의 중요성을 평가받지 못하였다.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좌절되어 미완의 숙제로 남겨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민선6기 부산시 체육정책

2015년 7월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부산시 체육정책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부산시 체육진흥과는 정부조직도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문화관광국에 직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진단을 통해 건강체육국으로 직제 변경이 이루어져 부산시의 체육정책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활동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부산 체육발전 종합계획 발표 : 6대 분야 27개 사업

이러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11월 1일 서 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부산광역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2018년~2022년)으로 부산시 체육진흥과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체육시설 실태조사,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한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시설, 국제대회, 스포츠산업 등 6대 분야 27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부산시 체육정책 미래상 : 시민중심 생활체육 활성화

부산광역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인 2022년에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56.1%에서 70%로, 동호회 참여율은 11.4%에서 20%로 올려 생활체육분야에서 전국 최고 도시로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미처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던 100세 시대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 부산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감히 건강한 삶이라고 답하고 싶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부산 미래체육의 청사진이자 진정한 열린 체육정책인 체육복지를 통해 건강한 100세 시대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



6

부산체육, 더 큰 발전을 꿈꾸며!

파워인터뷰 1

부산광역시체육회

유 재 진 부회장

체육은 인간을 가꾸는
정화과정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확립해야 하며 결과만 따지는
풍토를 지양하고 과정을 중요시
하는 스포츠문화 조성이 필요
합니다.



봉사정신으로 체육계와 인연, 해양레저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

30여년 동안 부산체육과 인연을 맺고 있는 유재진 부회장. 메르세데스-벤츠 부산·울산 공식 딜러 업체의 대표로만 살기에도 바쁜 그에게 과연 체육은 어떤 의미인가? 그에게 체육은 봉사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사이클연맹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이클 여자 실업팀을 본인의 회사에 창단하였으며 이후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골프협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체육회 부회장에 재임하고 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유재진 회장의 체육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여러 가지 직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체육 분야 직함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국제해양레저워크 집행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바다는 미래입니다. 바다를 통하여 스포츠와 레저를 발전시키고 조선과 관광, 유통 및 스포츠 산업 등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시대상황에 맞는 스포츠 정신 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인성교육 절실

유 부회장은 변화된 체육환경에 맞는 인성교육을 늘 주장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공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승리보다는 아름다운 패배를 더 인정해주고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그쳤다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지만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7년 동안 스웨덴 명예영사를 역임하면서 스웨덴 국민최고훈장을 수상한 그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선진국의 의식수준을 늘 부러워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한 선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는 건강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걷기를 실천한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등 작은 실천을 통하여 건강을 지키고 있다. 아마추어 최고 수준의 골프실력을 자랑하는 그는 골프실력의 비결을 평소에 걷는 것이라고 한다.

유 부회장은 오늘도 두벅 두벅 걷는다.
건강을 위해, 부산 체육과 지역 경제를 위해...

‘구도’ (球道) 부산, 전통의 강호로 명성 이어갈 터

파워인터뷰 2

전 광 열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우승팀〉

‘경남고’하면 ‘역사와 전통’이 떠오른다.

불세출의 스타 최동원, 빅보이 이대호, 송승준, 한현희 등 그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시도의 명예와 모교의 영광을 위하여 매 경기가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이끈 전광열 감독을 만나 보았다.

선수 개개인 파악, 인성을 중요시 하는 코칭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누구보다 더 큰 열정을 피워내는 이들, 경남고 야구부는 선배들의 기상을 이어 더 빛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활력이 넘쳤다. 현장에서의 남다른 코칭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광열 감독은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과 성향을 잘 파악해 그 선수에게 어울리는 솔루션을 찾아서 코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평소 선수들의 지도에 있어 그는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선수 개개인의 ‘인성’이다. 기본 인성을 중요시하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머리로 생각하고 신체로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 항상 인성을 다잡고 이를 발판삼아 훈련에 임했던 것이 최고의 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 듯 하다.

주요약력

경남고, 동아대 졸업
1995년~2013년 경남고등학교 코치
2014년~현재 경남고등학교 감독

주요성적

2017년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위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2위
전국체육대회 1위

즐기는 자, 두려울 것이 없다.

경남고는 최근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남고 저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전광열 감독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이후 기초체력 및 기본기 훈련을 시작으로, 올해 체전 대표 팀으로 선발된 후 대회참가를 통해 실전 감각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컨디션 조절에 중점을 두고 시즌을 끌고 왔다. 전광열 감독은 “선수들에게 승패를 떠나 기본기에 착실하고 즐기자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늘 긴장을 놓지 않고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한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가 선수들의 지도에 있어 평소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함께 동행하는 코치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열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철학이자 좌우명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든 노력하다보면 해답이 보이고 또,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 선수들의 탄탄한 기본기 만들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야구 인프라 기대

‘구도(球道)’ 부산에서 야구 명문고의 선수를 거쳐 코치로, 감독으로 25년의 시간을 바쳐온 그는 학생 선수들과 선진 야구문화를 위해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야구인 후배들이 경기를 펼치는 것이다. “후배들이 개선되고 발전된 경기장에서 충분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거둔 '유종의 미'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성료

부산선수단은 충북 충주 일원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8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6개를 획득하였으며, 종합점수 3만 6786점을 기록하였다.

10





득점 비중이 높은 단체전 종목의 부진이 아쉬웠다. 지난해와 달리 축구 남자 일반부 부산교통공사는 조기 탈락을 하였으며, 세일링도 거친 바다에서 훈련을 한 부산선수단은 내륙의 환경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핸드볼 여자일반부 부산시설공단은 결승전에서 서울시청에 19:22로 아깝게 패하였으며, 농구 여자일반부 부산대는 김천시청에 52:75로 패했다.

한편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홍선옥)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6934점을 기록하여 좋은 성적을 내었다.

올해 선전을 거둔 팀은 야구 남자고등부 결승전에서 경남고등학교가 홈런 3방으로 마산의 용마고등학교를 6: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갈매기씨름단은 이번 대회에 일반부 개인전 7개 체급에 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모두 8강에 진출하는 선전을 하였다. 그 중 이영호 선수는 역사급(-110kg)에서 우승하였고, 박동환 선수는 용사급(-95kg)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개인전에서는 유도의 여자고등부 김하윤 선수가 부산 선수단의 유도 첫 2관왕이자 78kg 이상급에서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였으며, 사격에서 진종오 선수가 공기권총 결선에서 244.8점을 쏘며 세계신기록을 달성하였다. 또, 핀수영의 이동진 선수는 표면 50m에서 15초 41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였다. 이외에도 부산체고 역도 황미진 선수가 대회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2017.11.13.(월) 15:00

장소 : 12층 국제회의장

사람과기술, 문화로 융합하는



12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식 및
유공자 시상식



단 및 유공자 시상식

이장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지난 11월 13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전국체육대회
에 참가한 부산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유공자들을 시상했다.



지난 11월 13일(월)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98회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합 우승, 종합 2위, 종합 3위를 차지한 6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시상과 종합점수가 전년 대비 500점 이상 향상된 2개 회원종목단체에 성취상을 수여했다.

또한 전국체전의 부산선수단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특별상과 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한 감투상과, 부산선수단 중 최고의 성적을 이룬 단체 및 선수에 대하여 최우수상 시상을 가졌다.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최영완 전무이사는 소속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3연패를 기록하였으며 그 소감을 들어 보았다.

“다른팀과 차별화하여 스파르타식 훈련과 우수한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부산체고 선수들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1달 앞두고 태국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동계훈련은 세팍타크로의 종주국인 태국으로 가서 진행 할 예정이며 제99회 전국체전에서 4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부산체육고등학교 황미진 역도 선수는 부산선수단 중 유일하게 대회 3관왕을 차지하였다.

“58kg급에서 체중 관리하여 53kg급으로 내려 인상·용상·합계에서 3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체급은 내렸지만 기록이 좋아진 이유는 웨이트 트레이너 선생님에게 몸운동 코칭을 계속 받았으며 매일 3시간 씩 인상과 용상으로 주운동을 병행하였습니다.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향후 실업팀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싶은 바램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대비 500점 이상 점수가 향상된 팀으로 성취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의 전영준 전무이사는 “선수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작년대비 올해는 631점이 향상되었습니다. 대진운도 좋았으며 체계적인 훈련방식도 좋은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남고부와 여고부는 동주대학교에서 합동훈련을 합니다. 여고부는 남고부를 상대로 훈련에 임하여 힘과 스피드를 실전보다 강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매일 4시간씩 규칙적으로 웨이트, 인터벌, 라켓훈련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훈련합니다. 실업팀도 집합훈련이 가능한 선수들로 구성을 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고 전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고등부 단체 준우승을 차지한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신순범 탁구감독은 “외부에서 선수 10명을 스카우트하였습니다. 산악훈련으로 체력을 기르고 빠른 시간내에 힘이 버틸 수 있는 집중적인 웨이트 훈련으로 주당 2~3회 전담 시간강사의 지도아래 부분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 결과 10년만에 단체전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다가오는 동계훈련에도 열심히 지도하여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유공자 시상 명단



▶▶ 특별상

소속	성명 / 직위	공적
해운대구청	백 선 기 구청장	관내 세일링 실업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제레이저급 대회 3연패 및 체육발전에 기여
부산시설공단	김 영 수 이사장	핸드볼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전국체전 준우승을 차지하여 체육발전에 기여
부산대학교	이 근 모 교수	농구(여)팀 종목을 육성하여 끝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상위입상 함으로써 부산체육 발전에 기여
부산체육고등학교	홍 선 옥 교장	체계적인 관리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종목별 고른 종합득점 획득, 부산선수단 성적 향상에 기여
경남고등학교	정 대 호 교장	교내 야구부 육성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1997년 이후 20년만에 전국체전 우승

▶▶ 감투상

소속	성명 / 직위	공적
부산체육고등학교	신 순 범 탁구감독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 전국체전 고등부 단체 준우승 차지
해운대구청	하 지 민 세일링선수	금년 전국체전 개인전 우승으로 대회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부산선수단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
부산시체육회	정 민 아 근대5종선수	체계적인 훈련과 자기관리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대회2관왕을 차지하였으며 타의 모범선수
삼정고등학교	김 하 윤 유도선수	압도적인 기량으로 2017년 대회 전관왕 및 전국체전 3연패, 대회 2관왕
부산시체육회	조 주 영 체조선수	큰 부상을 딛고(목뼈 함몰) 끊임 없는 노력과 재활을 통해 전국체전 3위 입상하여 부산선수단의 귀감이 된 선수

▶▶ 감사패

소속	성명 / 직위	공적
부산상공회의소	조 성 제 회장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부산대표 선수단 격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
(주)부산도시가스	김 영 광 대표이사	

▶▶ 최우수선수

단체

종목	소속	공적
세팍타크로	부산체육고등학교	· 단체전 대회 3연패

개인

종목	성명	소속	공적
역도	황미진	부산체육고등학교	부산선수단 중 유일 대회 3관왕



ATHLETICS

제6회 부산초·중학생 육상경기챌린지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지난 9월 23일(토) 구덕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부산지역 56개 초·중학교 4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육상의 저변확대 및 꿈나무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6회 부산 초·중학생육상경기 챌린지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하여 6회째를 맞는 챌린지대회는 32개 종목에 414명의 비전문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교육감배 대회도 동시에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올해 챌린지부문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3~5학년) 10명씩 총 30명을 모집하며 11월부터 영재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올림픽의 꽃, 육상! 자라나는 꽃, 육상 인재!

챌린지대회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허들 등의 종목으로 열렸다. 육상은 인간의 몸으로 운동 능력을 보여 주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운동이다. 모든 운동 경기에 기본이 되는 육상은 성장기 학생들의 튼튼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좋은 운동이다. 올림픽에서도 육상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육상이 강한 나라들은 기본적인 체육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들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 육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육상 꿈나무를 발굴하고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정정당당한 승부 겨룰 미래 인재들 기대

초등부 종합1위를 차지한 사직초등학교 하기상 교사는 “우수학교스포츠클럽으로 현재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20분간 조깅과 종목별 기록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챌린지대회를 통하여 일선 학교에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중에서 기량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전문선수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는 선수 발굴 경로를 다변화하여 전문체육의 자원을 확보하고, 육상뿐만 아니라 타종목의 미래 인재로 키워나가겠습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활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정과 도전정신에 대한 참 뜻을 깨닫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고 서로 배려하는 미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CONFERENCE

제98회 전국체전 출전학교장 간담회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지난 9월 25일(월)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출전학교장 및 부감교사,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직원이 참석하여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당부하고 출전 학교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8





특별한 관심과 격려 당부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또한 전력분석을 기초로 한 목표설정과 마무리 훈련계획 수립을 통해 소속팀·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 경기력은 비례하여 상승하므로 학교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강조했다.

이어서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동창회 등 관계자들이 훈련장 및 체전현지를 방문하여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우수선수 확보하는 노력과 지원 필요

고등부 경기력 약화의 주요 요인은 선수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력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 방안으로 2018년도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팀의 전력보강 및 적극적인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체적인 팀 운영비 확보를 위해 향후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시교육청이 협의하여 팀 육성을 위한 훈련비와 장비비 등 공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국체전에서의 부산선수단 목표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촌식

20

백년대계를 선도하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7일(수)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기 위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촌식(이하 개촌식)'을 개최하였다. 개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도 임원·자문위원, 구군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개촌식에 참가하여 새로운 선수촌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AGENDA2020 홍보영상, 충북예술단의 사물놀이 공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영상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영광·도약·희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개촌식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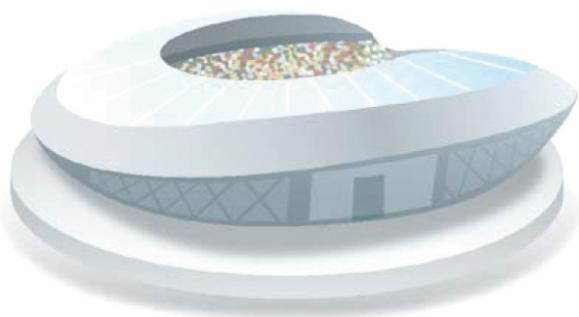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및 꿈나무 선수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 훈련 실시를 통한 올림픽·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의 우수한 성적 거양을 위해 설립하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백년대계를 선도할 종합훈련장이 된다.

진천선수촌은 최첨단 기술, 압도적인 규모, 쾌적한 환경으로 건립하기 위해 사용의 편리성과 독창적인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설계 되었다. 또한 친환경계획 및 에너지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선수촌으로 조성하는 한편, 공법 및 시스템 개선으로 정밀성 및 성능을 강화시켜 세계 최고의 국가대표훈련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천선수촌의 시설은 3가지 존으로 분류 되어있다. 먼저 실내훈련시설은 복싱·카라테·태권도·우슈·유도 종목을 수용하는 필승관, 역도·볼링·펜싱·레슬링·체조 종목을 수용하는 개선관, 세팍타크로·스쿼시·탁구·핸드볼·배드민턴 종목을 수용하는 오륜관, 컬링·아이스하키·빙상 종목을 수용하는 빙상장, 사이클 종목을 수용하는 벨로드롬, 경영·싱크로·수구·다이빙 종목을 수용하는 수영센터, 실내테니스장, 실내사격장, 농구·배구장, 조정·카누장, 실내양궁장으로 건립되었다.

실외훈련시설은 제1·2육상장, 야구·소프트볼장, 클레이사격장, 다목적 필드, 실외 테니스장, 하키장, 럭비장, 실외양궁장으로 건립되었다.

부대지원시설로는 선수 숙소인 화랑관, 방문자센터,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메디컬센터, 스포츠과학센터, 행정센터 등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장에 나가기 위한 전사들의 가장 강력한 훈련장인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민속놀이로 전통과 건강한 인성을 잇다!



'전통스포츠보급' 펼쳐져

민속놀이를 즐기며 전통에 대한 관심과 전통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가 이 지난 10월 25일(수)과 10월 27일(금), 11월 17일(금) 동향 초등학교와 남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학교에서는 줄다리기, 계주, 씨름, 굴렁쇠굴리기 등 학생과 학부모가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운동회 형태로 전통놀이 한마당을 구성하였으며 투호,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교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 문화 체험으로 운영하였다.



동향초등학교 국악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채로운 운영

강당, 운동장, 교실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하여 행사를 함께 축하하였다. 강당에서는 국악오케스트라연주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동향국악오케스트라는 2013년에 창단하여 감만아트페스티벌(2015), 예문오케스트라축제(2016), 남구평생학습박람회, 남부문화 예술축제(2017) 등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가하여 국악의 맛을 전하고 있다. 활동인원은 3~6학년 학생으로 가야금 10명, 해금 8명, 대금 및 소금 8명, 향피리 및 태평소 6명, 타악 7명 등 총 39명이다. 이번 행사에는 아리랑 메들리, 국악관현악곡 <축제> 3악장의 감미로운 국악 선율을 느껴볼 수 있는 곡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한편,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의 모교이기도 한 동향초등학교는 2019년 4월 1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기대해본다.



남천초등학교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투호, 윷놀이, 널뛰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팽이, 굴렁쇠 굴리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통놀이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으로는 사물놀이 공연, 꼭두각시 무용, 활쏘기 체험, 난타 공연, 뽕튀기, 엮이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장평중학교 '전통놀이 문화체험 및 한마당'

2~3학년 학생, 교사 및 학부모 400명이 참가하는 '전통놀이 문화체험 및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체험종목은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딱지치기 등으로 학생들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놀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상의 정서와 생활모습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놀이의 인식변화와 문화유산 되새긴 계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전통놀이를 잘 알게 되었고, 잊혀져가는 전통놀이에 대한 인식 제고로 현대의 미디어 및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유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문화 개척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모들의 호기심과 기대에 만족하는 동시에 전통종목의 계승에 큰 역할을 하며,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4



REPRESENTATIVE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지난 10월 10일(화)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0일(금)부터 10월 26일(목)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 된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 △ 생활체육 동호인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화합 축제의 날로 범시민적인 체육대회로 승화하는 '제28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계획' △ 통합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총회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 권한의 회장 위임 승인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를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이후 발생한 보선 임원에 대하여 보고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 현황' △ 본예산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보조금과 기타수입 등을 정리하고, 변경된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한 실행 예산 편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심의사항으로는 대한체육회 정관 및 시·도체육회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체육회규약 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전부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개정에 따라 임원 정수가 감사를 포함하여 37인에서 52인으로 변경되어 추가 임원 선임의 필요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등을 심의하였다.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체육축제 한마당!

제28회 부산시민체육대회



26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하고 화합의 장인 '부산시민체육대회'는 부산체육의 상징이자 스포츠 자부심인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부산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지를 새로이 다졌다.



16개 종목, 4천여 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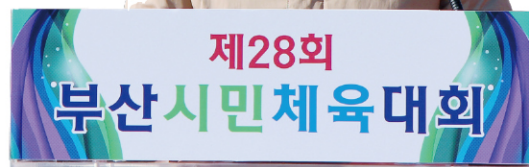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지난 11월 5일(일) '제28회 부산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개최종목은 정식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배구, 탁구, 볼링, 태권도, 검도, 그라운드골프, 체조, 국악기공, 줄넘기(단체), 줄다리기와 시범(당구)종목 등 총 16개 종목에 4,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아시아드보조경기장 등 11개 경기장에서 구·군대항전으로 치러졌다. 올해는 범시민클럽대항전 결선 대회가 부산시민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되면서 야구·볼링·탁구 등 120명의 선수단도 출전하였다.

개회식전, 부산골프고등학교의 태권도 시범과 벨리댄스 공연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16개 구·군선수단 및 범시민클럽대항전선수단 입장, 개식통고, 개회선언, 선수대표 선서로 막을 올렸다. 이날, 부산광역시체육회 서병수 회장,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현 의장,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대한체육회 전총련 사무총장, 구·군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입장식을 함께 축하하였다.

선수단 입장에는 부산시민취타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피켓 및 대회기, 구·군체육회기, 회원종목 단체기, 구·군별 선수단이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차례대로 입장하였다.

범시민 건강 프로젝트!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부산광역시체육회 서병수 회장은 "우리는 시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부산시민 건강생활 수칙' 11가지를 마련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라는 범시민 건강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려한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항상 챙기겠다. 아울러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리그전을 개최하는 등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도시 부산(Sports City Busan)'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함께 뛰고 즐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

검도대회는 양정모 실내훈련장에서 구·군별 팀당 9명이 출전하였으며, 단체전은 초등부·청소년부·여자부·청년부·중년부·장년부·노장부로 구분되어 경기가 펼쳐졌다. 게이트볼대회는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구·군별 팀당 7명이 출전하여 예선 리그전으로 하며 각 조 2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토너먼트 전으로 진행되었다. 국학기공대회는 실내체육관 본구장에서 구·군별 팀당 15명이 출전하여 기본 및 창작 국학기공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당구대회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내 당구전용훈련장에서 동호회 대항전으로 팀당 10명이 참가하여 경기가 펼쳐졌다. 배구대회는 실내체육관 보조A경기장에서 구·군별 팀당 12명이 출전하여 3세트 15점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가 펼쳐졌다. 볼링대회는 아시아드스포츠센터 볼링장에서 구·군별 팀당 8명이 출전하여 남·여부별 3인조 5게임으로 총 30게임 득점순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체조대회는 실내체육관 본구장에서 구·군별 팀당 15명이 출전하여 에어로빅스·힙합·뽀즈 등 다양한 분야로 경기가 펼쳐졌다. 축구대회는 을숙도생태공원 축구장에서 구·군별 팀당 18명이 출전하여 토너먼트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탁구, 태권도,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줄다리기 등 부산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은 함께 뛰고 즐기며 삶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민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보여준 계기

종목별 경기가 끝난 후 폐회식에는 종합시상, 경품추첨, 폐회사, 폐식통고로 마무리되었다. 종합시상에는 사상구체육회가 우승을 차지하여 경기력상을 수상하였다. 사상구체육회는 우수한 경기력으로 3년 연속 우승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각 종목 성적이 상승 된 순으로 결정하는 성취상은 부산진구체육회가 차지하였고, 경기진행 수준과 경기장 환경정리가 탁월한 경기운영상은 부산광역시배구협회·태권도협회가 수상하였다. 그리고 입장대열·질서유지·환경정리가 우수한 질서상에는 1위 동구체육회, 2위 영도구체육회, 3위 강서구체육회가 차지하였으며 입장식 및 관중참여인원·독창성·참가종목이 탁월한 화합상에는 1위 기장군체육회, 2위 해운대구체육회, 3위 금정구체육회가 차지하였다.

끝으로 질서유지와 타의 모범을 보인 스포츠 7330 진흥상은 중구·서구·동래구·남구·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체육회가 수상하였다.

이번 시민체육대회는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시민과 동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부산 체육의 발전은 물론 재도약을 위한 역동적인 시민상을 구현하였다. 아울러 체육대회가 구·군 대항전으로 개최되어 지역민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부산 시민체육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는 2018년 2월 9일(금)부터 2월 25일(일)까지 17일간 대한
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평창은 지난 2011년 7월 6일 열린 제 123차 IOC 총회에서 과반 표
를 획득하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이 개최된다. 평창에서 개·폐회식과 설상 경기가 개최되며, 강릉에
서는 빙상 종목 전 경기가, 그리고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15종목 102개 세부종목이 열리며,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는 대회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부터 스노보드 빅에어(남·여),
매스스타트(남·여), 컬링 믹스더블, 알파인 스키 혼성 단체전 등 6개 세부종목이 새로
추가되어 역대 대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혼성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종목

경기 종목은 설상, 빙상, 슬라이딩으로 진행된다. 먼저 설상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등 7개 종목, 빙상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종목, 슬라이딩은 봅슬레이, 루지, 스킨레톤 등 3개 종목으로 경기가 펼쳐진다.

슬로건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

'Passion'은 올림픽의 정신과 한국의 따뜻한 정을 의미

'Connected'는 평창의 새로운 시작과 세계의 조화를 표현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동계 스포츠의 지속적인 확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뜻이 담겨있다. 'Passion'은 열정, 애착, 몹시 좋아하는 것 등을 뜻하는 말이다. 평창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완성해 가는 곳이다. 'Connected'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어지다, 맥이 통하다 등의 뜻이다. 평창은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새로운 시작과 세계의 조화,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엠블럼



PyeongChang 2018™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 그곳의 눈(설상)과 얼음(빙상)에서 선수들과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세상을 의미한다.

성화봉송

2017년 10월 24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올림픽 성화는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봉송 행사를 갖게 되었으며 101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경유하여 2,018km를 잇는 봉송거리에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사람들과 꿈을 갖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갈 사람들로 주자를 선발하였다.

대한민국 곳곳을 방문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숨겨진 가치를 알리게 될 성화봉송행사는 인천광역시와 제주도를 지나 지난 11월 4일(토)부터 11월 6일(월)까지 3일간 해양수도 부산의 곳곳을 누비면서 평화의 불꽃을 밝혔다.

성화의 불꽃은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부가적인 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그 불꽃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동계올림픽을 향한 기대와 열정도 함께 커져 나갈 것이 분명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나아가 우리 부산의 하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기원한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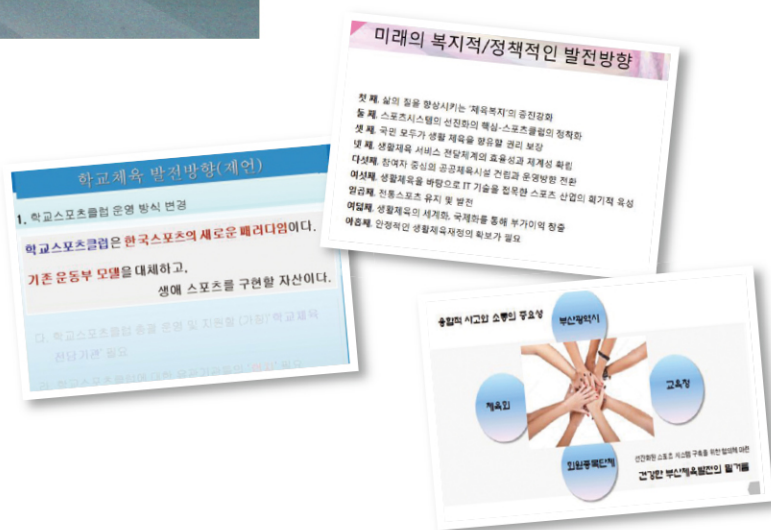


스포츠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체육 세미나**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부산 체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체육 세미나'를 지난 11월 27일(월)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질의응답에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은퇴선수를 위한 정책적인 관리방법 및 개선사항 등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꿈나무체능단 소식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 22일(금) 부산국립과학관에서 '꿈나무체능단 가을소풍'을 개최하였다. 과학을 처음 경험하게 된 꿈나무체능단은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난 10월 21일(토) '2018년도 원아모집 공개추첨'을 진행하였다. 수영 및 예체능 수업으로 타 유치원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으며 재원생을 포함하여 2018년도 단원 86명으로 모집을 마감하였다.

이어서 지난 10월 29일(일) 가을운동회를 개최하여 단원, 학부모, 조부모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34



신규프로그램 (줄바) 개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줄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일주일간 무료 강습을 개최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예정이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초등학생들의 수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생존수영에 관내 4개초등학교(대신초·부민초·동신초·부민초), 12개 반 3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잡고 대처방법·생존수영·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였다. 올해 진행한 생존수영 교육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최상의 생존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새벽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월 ~ 금	06:00~06: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이상
생활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07:00~07:50 08:00~08:50	성인 67,100 노인 52,800 청소년 60,500	청소년 이상
어머니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09:00~09: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여성
웰빙수영(격일)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0:00~10: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 ~ 금	11:00~11:50	성인 67,100 노인 52,800	
성인수영	A반 월, 수, 금	14:00~14: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여성
실버수영	화, 목, 토		44,000	65세 이상
성인수영	B반 월, 수, 금	15:00~15: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누구나
돌고래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6:00~16:50	39,600 33,000	초1~6년 7세~초4년
하마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7:00~17:50	39,600 33,000	초1~6년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 수, 금	18:00~18: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누구나
직장인수영(매일)	C반 월 ~ 금 D반 월 ~ 금	19:00~19:50 20:00~20:50	성인 67,100 청소년 60,500 노인 52,800	청소년 이상
야간수영		21:00~21:50	성인 67,100 노인 52,800	성인 누구나
주말수영(배영 이상)	토	15:00~15:50	25,300	초2~6년
아쿠아로빅	A반 화, 목, 토 B반 화, 목, 토 C반 월, 수, 금 D반 월, 수, 금 F반 월, 수, 금 E반 화, 목, 토	12:00~12:50 15:00~15: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8:00~18:50	성인 60,500 노인 52,800	성인 여성
월자유수영	A반 월 ~ 금 B반 월 ~ 금 C반 월 ~ 금 D반 월 ~ 금 F반 월 ~ 금	06:00~07:30 08:00~09:30 10:00~11:30 17:00~18:30 19:00~20:30	성인 53,900 노인 33,000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 실버수영, 돌고래B, 하마B, 아쿠아로빅의 토요일 프로그램은 자유수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헬스교실	월 ~ 토	06:00~22:00 토 16:50까지	성인 47,300 노인 38,500 청소년 38,500	청소년 이상
배드민턴	A반 월 ~ 목 (강습) B반 월 ~ 목 (강습) C반 월 ~ 목 (강습) D반 월 ~ 목 (강습) E반 월 ~ 목 (강습) F반 월 ~ 목 (강습) G반 월 ~ 목 (강습) H반 월 ~ 목 (강습) I반 월 ~ 목 (강습) J반 월 ~ 목 (강습) K반 월 ~ 목 (강습) L반 월 ~ 목 (강습)	06:00~06:50 07:00~07:50 08:00~08:50 09:00~09:50 10:00~10: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성인 45,100 노인 38,500	청소년 이상
탁구교실	A반 월 ~ 목 (강습) B반 월 ~ 목 (강습) C반 월 ~ 목 (강습)	18:00~18:50 19:00~19:50 20:00~20:50	성인 41,800 노인 38,500	성인 이상
어린이배드민턴	월, 수, 금 화, 목	16:00~16:50	38,500 33,000	초3~6년 초1~6년
농구교실	A반 월, 수, 금 B반 월, 수, 금	16:00~16:50 17:00~17:50	초등 38,500 청소년 44,000	초1~6년
필라테스	B반 화, 목, 토 C반 화, 목, 토 D반 화, 목, 토 E반 화, 목, 토 F반 화, 목, 토 G반 화, 목, 토 H반 화, 목, 토 I반 화, 목, 토 J반 화, 목, 토 K반 화, 목, 토 L반 화, 목, 토	06:30~07:20 09:00~09:50 10:00~10:50 14:00~14: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성인 50,600 청소년 45,100 노인 38,500	청소년 이상
실내 축구	화, 목, 토	15:00~15:50	38,500	7세~초3년
발레교실	화, 목, 토	16:00~16:50	33,000	5세~7세
음악줄넘기	화, 목, 토	17:00~17:50	38,500	초등학생
어린이발리댄스	월, 수, 금	17:00~17:50	38,500	7세~초등생
에어로빅	A반 월, 수, 금 B반 월, 수, 금	10:00~10:50 18:00~18:50	50,600 51,700	성인 누구나
발리댄스	월, 수, 금	16:00~16:50	성인 50,600 노인 38,500	성인 누구나
스포츠댄스	초급 화, 목 중급 화, 목	19:00~19:50 20:00~21:30	성인 39,600 노인 38,500 성인 44,600 노인 38,500	청소년 이상
줌바	월, 수, 금	17:00~17:50	성인 50,600	성인 누구나

35



요가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새벽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월, 수, 금 D반 월, 수, 금	06:00~06:50 07:00~07:50 08:00~08:50		
웰빙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월, 수, 금	10:00~10:50 11:00~11:50	주2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생활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4:00~14:50 15:10~16:00		
아로마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화, 목, 토 A반 월, 수, 금	16:00~16:50 17:10~18:00	성인 50,600 노인 38,500 청소년 45,100	청소년 이상
직장인요가	B반 화, 목 C반 월, 수, 금 D반 화, 목	19:00~19:50 15:00~15:50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속독교실	토	14:00~14:50	25,000	초등~중등
바둑교실	A반 토 B반 토	14:00~14:50 15:00~15:50	30,000	초1~초6
신나는 과학교실	금	15:10~16:00	30,000	6~초3
동화구연	월	15:10~16:00	25,000	5~7세
블록놀이 (아이링고)	수	15:10~16:00	30,000	6~7세
지니맥	A반 수 B반 수	15:10~16:00 16:10~17:00	30,000	유치부

※ 재료비 및 부가세 별도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북구국민체육센터 대수선 보수공사 완료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 체육관 등을 갖춘 부산시민의 건강요람으로 자리 잡은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각종 노후시설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대수선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보수공사는 수영장 천정 교체, 탈의실 · 샤워실 이끼제거, 보일러실 · 개인사물함 정비, 물 교체, 풀장 청소 등 불편한 부분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수영 · 헬스 · 아쿠아로빅 · 에어로빅 · 배드민턴 등 13개 프로그램의 강습과 어린이 · 노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다.

36

부산북구스포츠클럽 『수영 꿈나무선수반』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북구스포츠클럽이 수영선수의 꿈을 가진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 '수영 꿈나무선수반'을 운영한다. 초등부 학생들로 이루어진 '수영 꿈나무선수반' 운영은 국가대표 출신의 우수한 지도자의 훈련과 꾸준한 영법교정 및 스피드 강화연습, 실전대비 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고 메달을 획득 할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부산북구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즐겁게 운동하면서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프로그램

성 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굿모닝	06:00 ~ 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 ~ 07:50	초급	
		중/고급	
		연수	
		초/중급	
	08:00 ~ 08: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돌고래	09:00 ~ 09:50	초급	초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10:00 ~ 10:50	초급	중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11:00 ~ 11:50	초급	고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거북이	15:00 ~ 15:50	초급	연수 (40명)
		중급	
		고급	
		연수	
	17:00 ~ 17: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굿나잇	19:00 ~ 19: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0:00 ~ 20: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1:00 ~ 21: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아쿠아로빅	12:00 ~ 12:50	초급	50명
	14:00 ~ 14:50	중급	80명
		고급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어린이 수영교실	12:00 ~ 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 (25명)
		어린이종합반	
	14:00 ~ 14:50	유아(월, 수, 금)	
		초급	
	17:00 ~ 17:50	중급	
		고급	
	18:00 ~ 18:50	초급	
		고급	

주말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 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주말수영	토, 일 11:00 ~ 11:50	주2회	주2회
핀수영	토, 일 09:00 ~ 09:50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 인 48,000원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참 가 일
(월)자유수영	1부 08:00 ~ 08:50	월 ~ 금 (주5회)
	2부 12:00 ~ 13:50	
	3부 18:00 ~ 18:50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 일	08:00 ~ 08:50			월 ~금
		12:00 ~ 13:50			
		18:00 ~ 18:50			
	주말	1부	09:00 ~ 11:50		주말/공휴일
		2부	13:00 ~ 17:50		
		12:00 ~ 13:00 수질정화시간 (임장불가)			
이용요금	회 원		비 회 원		
	성 인	2,300원	성 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스튜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타바타 (월, 수, 금)	06:00 ~ 06:50	25명	성 인 50,000원
타바타 (화, 목)	06:00 ~ 06:50		성 인 40,000원
요가 (월 ~ 금)	07:00 ~ 07:50		성 인 57,000원
	19:00 ~ 19:50		청소년 50,000원
중바로빅 (월, 수, 금)	09:00 ~ 09:50		성 인 47,000원
뮤직필라테스 (화, 목)	09:00 ~ 09:50		성 인 42,000원
파워로빅 (월 ~ 금)	10:00 ~ 10:50		성 인 57,000원
	11:00 ~ 11:50		청소년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 (월 ~ 금)	20:00 ~ 20:50		성 인 57,000원
	21:00 ~ 21:50		청소년 50,000원

스트레칭

프로그램	강습 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 ~ 12:50	월, 화, 목	30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 ~ 19: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 ~ 15: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 ~ 16:50	월, 화, 목	30	30,000원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정 원	(월)회비
배드민턴 (월 ~ 금)	06:30 ~ 07:50	40	30,000원
	19:00 ~ 20:20		
	20:30 ~ 21:50		

헬스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 ~ 21:50	성 인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 ~ 17:50	청소년 41,000원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 ※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존회원 매월21일 ~ 23일 신규회원 매월24일 ~ 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2078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중구체육회(회장 김은숙)는 지난 10월 15일(일) 광일초등학교에서 중구민 1,100명이 참가하는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종목은 검도,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당구, 댄스스포츠, 농구, 족구 등 11개 종목으로 개최 되었다.

이번대회를 통해 중구민의 기초체력 증진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도다리 만남의 시민걷기



중구체육회(회장 김은숙)는 지난 10월 21일(토) 유라리 광장에서 '영도다리 만남의 시민걷기'를 개최하였다. 코스는 유라리광장-자갈치시장-광복로패션거리-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롯데백화점 광복점-부산대교-물양장-영도대교-유라리광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약 5km 걷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걷기행사는 트레킹과 기부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부산시민들의 가을 걷기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체육회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서구체육회(회장 박극제)는 지난 9월 9일(토)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14가정 50명이 참가하였으며, 워터파크 및 물놀이로 참가자들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서구민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회장 박극제)는 지난 10월 22일(일) 구덕운동장 외 6개소에서 '서구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축구·배드민턴·테니스·태권도·탁구·게이트볼·족구 등 7개 종목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동안 클럽활동을 통해 꾸준히 다져온 동호인들의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3회 서구청장배 꿈나무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회장 박극제)는 지난 11월 4일(토) 구덕운동장 주경기장에서 11개 초등학교 50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서구청장배 꿈나무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풋살·피구·단체줄넘기·릴레이·2인3각경기·100M달리기·O×퀴즈·응원전 등 8개 종목으로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투호·굴렁쇠굴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풍선아트·양금플라워 및 먹거리를 같이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의 참가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동구체육회

동구민 화합한마당 제4회 가을운동회



구·군체육회 소식

동구체육회(회장 박삼석)는 지난 9월29일 (일) 부산중학교 운동장에서 동구민 3,000 명이 참가하는 '동구민 화합한마당 제4회 가을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동구민들의 동대향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입 장식퍼레이드, 레크리에이션 및 이어달리 기 등 푸짐한 경품추첨이 진행되었다.

대회결과, 종합 1위는 수정2동, 공동2위는 수정5동·범일1동, 공동3위는 수정4동·범일5동이 차지하였다. 이날 동구민들의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동구건설" 슬로건에 따라 내년에도 더 많은 동구민들의 축제한 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년 노한성장사배 동대향 씨름대회



동구체육회(회장 박삼석)는 지난 9월29일 (일) 부산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씨름장에서 '2017년 노한성장사배 동대향 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

53명의 주민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화려한 씨름기술을 선보였으며 엘리트 선수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경기결과 1위는 수정 5동, 2위는 좌천동, 공동3위는 초량2동·수정1동이 수상하였다. 이날 수상 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은 '2018년 부산씨름왕선 발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영도구체육회

스포츠후원회위원 및 임직원간담회



영도구체육회(회장 어윤태)는 지난 9월 5일(월) 태종대전망대에서 영도구체육회장, 수석부회장, 임원진 및 스포츠후원회, 직원 및 구청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스포츠후원회 및 임직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2017년도 스포츠후원회 사업계획(안)으로 영도구 여성축구단, 부산생활체육축전, 레인보우야구단, 리틀야구단, 초·중등 유소년축구대회, 제1회 영도구청장배 초등꿈나무 생활체육대회에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체육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영도구체육회 이사회



영도구체육회(회장 어윤태)는 지난 9월 18일(월) 영도구청2층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수석부회장, 부구청장, 감사, 운영위원회, 이사 및 직원들이 참석하는 '영도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회의록보고, 부의안건(영도구체육회 이사인원 증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제98회 전국체전 격려일정)과 체육분야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후에는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진구체육회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대회



부산진구체육회(회장 하계열)는 지난 9월 24일(일) 푸른 신록의 자연 경관과 함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명소인 백양산에서 '백양산 숲길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8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가자들은 "운동의 중요성과 자연 속을 걸으며 가족 공감은 물론 이웃간에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10회 부산진구골드울동 경연대회



부산진구체육회(회장 하계열)는 지난 9월 29일(금) 부산진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제10회 부산진구 골드울동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40

이번 대회에 500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하여 건강한 삶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화려한 깃털장식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구사하는 부채춤을 비롯해 감각을 자극하는 벨리댄스, 경쾌한 음악과 함께하는 에어로빅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관계자들에게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회에 출전한 어르신들은 “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더불어 상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남구체육회

제1회 남구국회의원배 탁구대회



남구의회는 지난 9월 3일(일) 남구국민체육회에서 20개클럽 2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는 '제1회 남구국회의원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하였으며 탁구동호인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대회결과 우승은 이준우(남자A~4부), 돌고래(남자5부), 두드림(남자6부), 메트로(남자7부), 두드림(여자A~4부), TTF(여자5~7부), 이준우(남녀초심부), 돌고래C(남자단체전), 파크(여자단체전)팀이 차지하였다.

이기대갈매길과 함께하는 제3회 남구청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남구체육회(회장 이종철)는 지난 9월 9일(토)부터 9월 10일(일)까지 백운포체육공원 테니스장 외 5개소에서 414팀 8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기대갈매길과 함께하는 제3회 남구청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 결과 신인부 우승은 서영배(울산 로

코), 이병희(울산 로코), 개나리부 우승은 김미자(부산 포에버), 이현주(부산 포에버), 혼합복식부 우승은 강정훈(부산명분·거점), 정자분(부산 솔)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제37회 남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남구축구협회(회장 김점현)는 지난 9월 10일(일) 백운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500여명의 동호인이 참석하는 '제37회 남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로 대회분위기를 이어간 결과, 우승은 용정축구회(천연), 감만축구회(인조)가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용주축구회(천연), 동천축구회(인조)가 차지하였다.

제32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



남구체육회(회장 이종철)는 지난 10월 21일(토) 부산환경공단남부사업소에서 '제32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를 개최하였다.

2천명의 구민이 참가하여 천혜의 절경인 이기대와 오륙도의 해안산책로 6.2km를 걸었다. 걷기를 하면서 버스킹, 포토트레

구·군체육회 소식

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종착지인 백운포체육공원에서는 공연, 체험, 푸짐한 경품추첨으로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남구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



남구테니스협회(회장 김국진)는 지난 10월 29일(일) 백운포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남구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5개 클럽, 300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회결과, 우승은 동천(여성부), 비공(동배:청), 이기대A(동배:홍), LG 2단지(은배), 동천A(금배)가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오륙도(여성부), 부산(동배:청), 삼익(동배:홍), 이기대(은배), 동천B(금배)가 차지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

해운대구청장배 국제서핑페스티벌대회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백선기)는 지난 9월 2일(토) 송정해수욕장에서 해운대구서핑협회 소속팀이 참가하는 '해운대구청장배 국제서핑페스티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며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제35회 해운대구청장기 축구대회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백선기)는 지난 9월 3일(일) 장산인조잔디구장에서 해운대구 축구 동호회 소속팀이 참가하는 '제35회 해운대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를 펼치며 건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회 해운대구청장기 동체육회 한마음 체육대회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백선기)는 지난 9월 10일(일) 기장체육관에서 해운대구민과 함께하는 '제2회 해운대구청장기 동체육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해운대구민 1500명이 참가하여 가을을 맞아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4회 해운대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백선기)는 지난 9월 24일(일) 기장체육관에서 '제24회 해운대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해운대구 배드민턴 동호회 소속팀이 참가하여 유대관계 증진과 친목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화합과 단합을 가지는 뜻깊은 대회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사하구체육회

사하구민체육대회



사하구체육회(회장 이경훈)는 지난 9월 3일(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하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종목은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스쿼시, 볼링으로 강서실내체육관 등 8개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사하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호인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결과 배드민턴 종목 1위-사하클럽, 2위-다대클럽, 3위-한샘클럽, 테니스 종목 금배 1위-베스트클럽, 금배2위-한울클럽, 축구종목 1위-에덴클럽, 2위-사하클럽, 3위-상록·사동클럽, 게이트볼 종목 1위-신평1조, 2위-울속도1조, 3위-다대1조, 국학기공 종목 1위-분수공원, 2위-장림2동, 3위-신평1동, 그라운드골프 종목 1위-김인선, 2위-김정순, 3위-최진두 동호인, 스쿼시 종목 1위-동주830, 2위-동원스쿼시, 3위-동주체육관·대쉬팀, 볼링 종목 1위-장현미, 2위-김운근, 3위-모한수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금정구체육회

제30주년 금정구축구협회 창립기념 및 지온정형외과배 축구대회



금정구축구협회(회장 임순택)는 지난 9월 10일(일) 선동천연잔디구장에서 '제30주년 금정구축구협회 창립기념 및 지온정형외과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대회를 통해 금정구축구협회 동호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고, 클럽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회결과 우승-남산축구회, 준우승-두실축구회, 최우수선수-박종근(남산), 우수선수-김연규(두실), 최우수심판상-부산광역시 축구심판위원회-주호권 심판이 차지하였다.

금정구체육회 3/4분기 이사회



금정구체육회(회장 원정희)는 지난 9월 22일(금) 골든웨딩타운 파티앤피티 뷔페에서 '금정구체육회 3/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의 심의 안건으로는 전국체전 격려, 금정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부산

시민체육대회 개최의 건, 당면현안사항 논의 등으로 이사회가 마무리 되었다.

제30회 금정구민한마음체육대회



금정구체육회(회장 원정희)는 지난 10월 28일(토) 금정구민운동장에서 '제30회 금정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식전행사, 개회식, 체육경기, 문화행사, 시상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외빈 및 참가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겼다.

제24회 금정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금정구체육회(회장 원정희)는 지난 10월 29일(일) 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4회 금정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화려한 입장식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대회로 마무리 되었다. 대회결과 1위-금정클럽, 2위-도시철도, 3위-금샘클럽이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강서구체육회

제1회 강서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강서구체육회(회장 노기태)는 지난 9월 25일(일) 명지동 근린공원에서 그라운드골프 동호인의 친선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해 '제1회 강서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부산진구·해운대구·사하구 등 총 13개 구·군 그라운드골프동호인 450명이 참가하였다. 대회결과 단체전 1위-해운대구팀이 차지하였다.

제2회 강서구청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강서구체육회(회장 노기태)는 지난 10월 22일(일) 명지동 75호광장에서 '제2회 강서구청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날씨에도 명지동·녹산동 등 총 7개동의 15개 클럽 테니스동호인 100명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결과 금배우승-한울클럽, 은배우승-북부교육청클럽, 동배우승-덕두클럽이 차지하였다.

연제구체육회

제22회 연제구청장기 동대항축구대회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위준)는 지난 9월 3일(일) 아시아드보조경기장 및 환경관리공단운동장에서 '제22회 연제구청장기 동대항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우승-연산3동선수단, 준우승-연산1동선수단, 공동3위-연산2동·연산4동선수단, 최우수선수-장병일(연산3동)선수가 차지하였다.

제9회 연제구청장기 동대항족구대회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위준)는 지난 9월 3일(일)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제9회 연제구청장기 동대항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우승-연산9동선수단, 준우승-거제1동선수단, 공동3위-연산1동·연산8동선수단, 최우수선수-신욱기(연산9동) 선수가 차지하였다.

제16회 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연제구배드민턴협회(회장 박철심)는 지난 9월 3일(일) 금정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협회 동호인 570명이 참석하는 '제16회 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결과 우승-연제클럽, 준우승-연신클럽, 3위-창신클럽이 차지하였다.

임원 해외수련대회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위준)는 지난 9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양일간 일본 대마도에서 연제구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한 감사와 이사 30명이 참석하는 '임원 해외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대마도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를 둘러보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1회 연제구합기도협회장기 합기도대회



연제구합기도협회(회장 한시영)는 지난 10월 14일(토) 국민체육센터에서 5개클럽, 250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제1회 연제구합기도협회장기 합기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종합우승-제일클럽, 종합준우승-신화클럽, 종합3위-선비무관클럽이 수상하였다.

연제구민 체육대회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위준)는 지난 10월 29일(일)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연제구민 4000명이 참석하는 '연제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종목은 바나나보트 릴레이(팀대항), 800m계주, 줄다리기(동대항), 단체줄넘기(동대항) 등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를 통해 구민들의 화합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결과 종합우승-거제3동, 종합준우승-연산동, 장려상-거제4동이 차지하였다.

수영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수영구체육회(회장 박현욱)는 지난 10월 29일(일) 수영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구소속 150개팀,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영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수영구민의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구별 종목대회의 대표선수를 육성하는 기반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44

전국체전 육상팀 격려 및 연제구체육회 이사회 단합대회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위준)는 지난 10월 22일(일) 충청북도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연제구체육회 임·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25명이 참석하는 '제98회 전국체전 육상팀 격려 및 연제구체육회 이사회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연제구 육상팀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사회 단합대회에는 도담삼봉과 사인암을 비롯하여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둘러보며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체육회

하반기 수영구청장배 국학기공 · 그라운드골프 · 궁도대회



수영구체육회(회장 박현욱)는 지난 9월 17일(일) 수영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구민 건강증진 및 종목별 동호인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수영구청장배 국학기공 · 그라운드골프 · 궁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수영구민들로 이루어진 종목별 대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상구체육회

제23회 사상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사상구축구협회(회장 김동일)는 지난 9월 17일(일) 삼락생태공원 축구장에서 '제23회 사상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3개팀, 450명이 참가하였으며, 경기결과 장년부 1위-모라클럽, 청년부 1위-괘법클럽이 차지하였다.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도 동호인들이 경기에 열정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부상자가 생기지 않고 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사상강변축제 수상레포츠체험교실



사상구체육회(회장 송숙희)는 지난 9월 23일(토)부터 9월 24일(일)까지 삼락생태공원 수관교 일원에서 '사상강변축제 수상레포츠체험교실'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총 925명이 참여하였으며, SUP·카약·레프팅·모터보트 등 4개조로 나누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체험교실은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어 수상레포츠체험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사상구체육회 홍보 효과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제28회 사상구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사상구테니스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10월 22일(일) 엄궁 유수지 테니스장 및 삼락테니스장에서 '제28회 사상구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16개클럽, 300명이 출전하여 경기를 펼쳤다. 대회결과 금배조 우승-해냄클럽, 준우승-청구클럽, 최우수선수상-해냄클럽이 차지하였으며, 은배조 우승-YTT, 준우승-해냄클럽, 3위-초원클럽, 우수선수상-YTT클럽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동배조

우승-테사랑, 준우승-두레, 공동3위-사상강변·한결, 우수선수상-테사랑클럽이 차지하였다.

제12회 사상구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



사상구배구협회(회장 박문자)는 지난 10월 29일(일) 다누리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12회 사상구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8개 클럽, 120명이 출전하여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결과 남자부 우승-어택클럽(이경열), 준우승-부산스카이(김상권)가 차지하였다. 여자부 우승은-백산클럽(김은향), 준우승-스타클럽(정선자), 3위-사상클럽(김경숙)이 차지하였다.

기장군체육회

제15회 기장군초등학교 축구대회



기장군체육회(회장 김결환)는 지난 9월 9일(토) 기장 월드컵빌리지 인조잔디 A·B구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우수 축구선수를 발굴하고, 단체운동을 통한 교우관계

개선 및 학창시절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제15회 기장군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7인제 우승-칠암초, 7인제 준우승-신진초, 7인제 공동3위-좌천초·월평초등학교가 차지하였으며, 11인제 우승-정관초, 11인제 준우승-일광초, 11인제 공동3위-달산초·신정초등학교가 차지하였다.

제1회 기장군수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기장군체육회(회장 김결환)는 지난 9월 23일(토)부터 9월 24일(일)까지 양일간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후 인기종목인 축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축구발전은 물론 축구 붐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기장 월드컵빌리지 인조잔디 A·B구장에서 '제1회 기장군수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부산팀은 U-8(2학년)준우승-동아FC, U-9(3학년)준우승-BEX.FC, U-10(4학년)우승-아이파크 클럽이 차지하였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축구협회〉

제7회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 참가

지난 9월 1일(금)부터 9월 3일(일)까지 3일간 강원도 홍천군 일원에서 부산선수단 120명이 참가하는 '제7회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이 개최되었다. 부산선수단은 축구동호인의 참여를 통한 체력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내년에 좋은 성적을 기약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제34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지난 11월 12일(일) 삼락A·B구장, 영도마린구장, 환경사업소 구장에서 축구동호인 600명이 참가하는 '제34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20·30대 우승-기장군, 50대 우승-남구, 20·30대 준우승-강서구, 50대 준우승-해운대구, 최우수선수상-기장군 장지호 선수·남구 윤성찬 선수, 우수선수상-강서구 주인철 선수·해운대구 이영만 선수가 차지하였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레슬링협회〉

제35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및 제27회 회장기전국중학교 레슬링대회 참가

지난 9월 1일(금)부터 9월 7일(목)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에서 부산선수단 81명이 참가하는 '제35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및 제27회 회장기전국중학교 레슬링대회'가 개최되었다. 제35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에서 경성대학교는 대학부 그레코로만형에서 우동규(85kg) · 정한재(59kg) 선수가 금메달, 조용범(130kg) 선수는 은메달, 손민기(71kg) · 노영훈(66kg) · 김상웅(80kg) · 봉필근(75kg) · 조준학(55kg) · 김민우(59kg)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였으며, 정한재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김정섭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하여 경성대학교 레슬링부의 명성을 드높였다.

〈부산시아구·소프트볼협회〉

제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야구대회 참가

지난 9월 2일(토)부터 9월 3일(일) 양일간 강원도 횡성 일원에서 부산선수단 24명이 참가하는 '제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야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야구 · 소프트볼협회는 생활체육전국 야구대회에 다양한 팀이 참여하고 생활체육전국야구대회의 규모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부산야구선수단이 더욱 많은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SOFT BALL

47



〈부산시볼링협회〉

제37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참가

지난 9월 3일(일)부터 9월 15일(금)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에서 부산선수단 26명이 참가하는 '제37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제주도의 남녕고등학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부산선수단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 체계적인 훈련과 향상된 경기력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기대해본다.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시도대항 볼링대회 참가

지난 9월 8일(금)부터 9월 10일(일)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일원에서 부산선수단 54명이 참가하는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시도대항 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남자부-6위, 여자부-14위로 종합 11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볼링동호인의 직접 참여를 통한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시·도 볼링동호인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검도회〉

제37회 부산광역시장기종별검도대회 개최

지난 9월 16일(토)부터 9월 17일(일)까지 기장실내체육관에서 검도동호인 800명이 참가하는 '제37회 부산광역시장기종별검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로 검도종목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동호인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48

〈부산시수중·핀수영협회〉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스킨스쿠버대회 참가

지난 9월 17일(일) 대전 한밭실내수영장에서 부산선수단 40명이 참가하는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스킨스쿠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핀수영장애물,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경기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동호인들도 대회에 참가하여 수중·핀수영동호인들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테니스협회〉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9월 17일(일) 종합실내테니스장 외 보조구장에서 테니스 동호인의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우승은 금배조-동맥클럽, 은배조-금화클럽, 동배조-한새벌클럽이 차지하였다.



〈부산시국학기공협회〉

제20회 부산광역시장기 국학기공대회 개최

지난 9월 23일(토)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동호인 700명이 참가하는 '제20회 부산광역시장기 국학기공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결과 금상은 청소년부-장산초등학교, 일반부-연산동호회, 어르신부-해운대 장산동호회, 은상은 청소년부-가야고등학교, 일반부-하단동호회, 어르신부-온천천새벽동호회, 동상은 청소년부-벤자민인성영재학교, 일반부-동구초량동호회·남구용호동호회, 어르신부-엄궁동호회·동구청동호회가 차지하였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그라운드골프협회〉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지난 9월 20일(수)부터 9월 21일(목)까지 강원도 횡성 일원에서 부산동호인 33명이 참가하는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노년기의 체력 단련 및 실버 세대의 인기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학기공 동호인들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대회결과 단체전에서 부산 북구팀 4위, 부산 금정팀-5위, 개인전에서 부산 이영우 동호인이 3위를 차지하였다.

제12회 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난 11월 10일(금)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 동호인 680명이 참가하는 '제12회 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단체전 우승-동래구, 준우승-금정구, 3위-북구가 차지하였으며, 개인전 우승-금정구(박규영), 준우승-해운대구(이석구), 3위-북구(이용기)가 차지하였다.



한·일교류 친선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난 11월 11일(토)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 67명이 참가하는 '한·일교류 친선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단체전 우승-금정구, 준우승-북구, 3위-금정구금샘팀이 차지하였으며 개인전 우승-연제구(배석준), 준우승-기장군(신윤철), 3위-해운대구(이석구)가 차지하였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카바디협회〉

제4회 전국종별비치카바디선수권대회 겸 제6회 전국초등학교카바디선수권대회 개최

지난 9월 23일(토)부터 9월 24일(일)까지 송도해수욕장에서 200명이 참가하는 '제4회 전국종별비치카바디선수권대회 겸 제6회 전국초등학교카바디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카바디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 팀당 4~6명으로 구성되어 총 28개 팀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국제 카바디대회를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카바디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족구협회〉

제1회 부산광역시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

지난 9월 24일(일) 백운포운동장에서 1,200명이 참가하는 '제1회 부산광역시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장소와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도 심신단련하기에 적합한 운동인 족구는 동호인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산시게이트볼협회〉

2017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난 10월 10일(화)부터 10월 11일(수)까지 삼락게이트볼구장에서 74개팀, 420명이 참가하는 '2017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개최되었다. 게이트볼대회는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부산시합기도협회〉

제1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참가

지난 10월 13일(금)부터 10월 15일(일)까지 충남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부산선수단 40명이 참가하는 '제1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합기도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는 단체연무경기, 대련경기, 호신형경기, 호신술경기, 기록경기로 전국 17개 시·도합기도협회 및 동호인이 참가하여 전국대회로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파크골프협회〉

제8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참가

지난 10월 23일(월)부터 10월 24일(화) 양일간 경북 영주에서 부산선수단 26명이 참가하는 '제8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파크골프는 세대간·지역간·나이·성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3대가 즐기는 유일한 가족스포츠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일상속의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본다.



53

제6회 부산광역시 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난 11월 4일(토) 삼락생태공원 내 다이내믹 36홀에서 부산선수단 400명이 참가하는 '제6회 부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시파크골프협회의 제2대 초대회장으로 김성호 회장이 역임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며, 범시민 생활체육 선진화시대의 시민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제6회 부산광역시 파크골프협회장배대회

일시 : 2017년 11월 04일 (토) 09 : 00 장소 : 삼락 다이내믹 36홀 파크골프장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보디빌딩협회〉

제16회 부산광역시장배 보디빌딩선수권대회 개최

지난 10월 29일(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부산광역시장배 보디빌딩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보디빌딩은 인간 신체가 지닌 순수함에 집중하여 근육과 균형 잡힌 몸매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스포츠이다. 도전과 끈기로 다져진 보디빌더들의 예술행위는 자신과의 끝없는 열정으로 남녀모두의 로망이 된다. 최근에는 보디빌딩이 매력적인 스포츠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산악연맹〉

제13회 부산산악문화축제 및 제48회 금정제 개최

지난 10월 26일(목)부터 10월 29일(일)까지 금정산·금정산성다목적광장·동래문화회관에서 '제13회 부산산악문화축제 및 제48회 금정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로 산악 동호인들은 산악인 한마당 축제, 길 찾기 등산대회, 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심호흡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시탁구협회〉

제22회 부산광역시장기 탁구대회 개최

지난 10월 28일(토)부터 10월 29일(일)까지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탁구동호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22회 부산광역시장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염원을 담아 진행되었으며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며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국가대표 선발 대학생 이동수업 업무협약 (MOU) 체결

국가대표 선발 대학생 이동수업 업무협약(MOU) 체결 (2017.9.28.)
-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이동수업을 위한 협약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김성조) 및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는 지난 9월 28일 올림픽회관에서 「국가대표 선발 대학생 이동수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집중 훈련 효과 증대와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 대학생 국가대표 선수의 학점 취득을 위한 이동수업과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거나 선수촌 외에서 훈련하는 대학생 국가대표 선수는 이동수업을 이수하여, 전공·교양과목을 합쳐 한 학기 당 최대 10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진천선수촌이 개촌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큰 화두였는데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대학생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동수업을 통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라고 전했다.

축구 아이리그 우수 선수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최

축구 아이리그 우수 선수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최(2017.9.22.)
-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 파주 NFC에서 프로그램 진행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스페인 유소년리그 명문 구단인 Getafe CF와 Union Adarve 구단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축구 아이리그 사업의 유·청소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15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 NFC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유·청소년 선수들은 이론 교육을 통해 선진 축구 기술 및 전술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실기교육은 초청된 외국인 지도자들이 국내 지도자들과 함께 세부 기술별 축구 클리닉 존을 운영하여 조별 순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도자들은 유소년 지도방법 강연 및 노하우 컨설팅 강연을 통해 선진 축구 교육법을 전달 받고,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선수·지도자의 기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여 아이리그에 참가하는 유·청소년 선수들을 글로벌 인재 및 스포츠 유망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개촌 기념, 대한스포츠의학회 심포지움 개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촌 기념,
대한스포츠의학회 심포지움 개최(2017.9.16.)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9월 16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3층 대강당에서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이경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스포츠의학회 회원 및 대한체육회 의료진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진천선수촌 개촌 기념 특별 강의를 시작으로 총 4부의 스포츠 의학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 내용으로는 제1부 진천선수촌 개촌 기념 특별강의, 제2부 운동 중 뇌진탕, 제3부 팀에는 팀 주치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4부 다빈도 스포츠손상 후 운동복귀(Return to play, RTP) 기준으로서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및 방안 등 스포츠의학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의학회는 지난 8월 23일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한체육회 의무인력 역량강화 및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및 부상에 대한 지원 등 협력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력 훈련장소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이전하면서 스포츠의학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한체육회, 제21회 한·일 생활체육교류에 선수단 192명 파견

대한체육회, 제21회 한·일 생활체육교류에 선수단 192명 파견(2017.9.13.)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9월 14일부터 7일간 일본 효고현에서 개최된 「제21회 한·일 생활체육교류」에 10종목 19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번 교류는 8,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인 「일본스포츠마스터즈 2017 효고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선수는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2018년에 대회 개최를 앞둔 충청남도 지역의 30세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선발되었으며, 축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정구, 테니스, 볼링, 연식야구, 소프트볼, 자전거 등 총 10개 종목 동호인들이 출전했다.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국제교류 사업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결정(1997년)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민간차원의 국제적 우호를 증진하고 있다.

하얀 설국으로의 여행, 겨울엔 **평창!**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알고보면 이곳은 동계 스포츠는 물론 겨울관광지 명소가 많다. 새하얀 대관령목장을 비롯해 백두대간을 따라 눈꽃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 오대산 월정사의 눈 내린 전나무길 등 보기도문 명장면부터 다양한 축제와 개성있는 음식까지 올 겨울엔 고민 없이 무조건 평창이다!

사진 및 자료협조 : 평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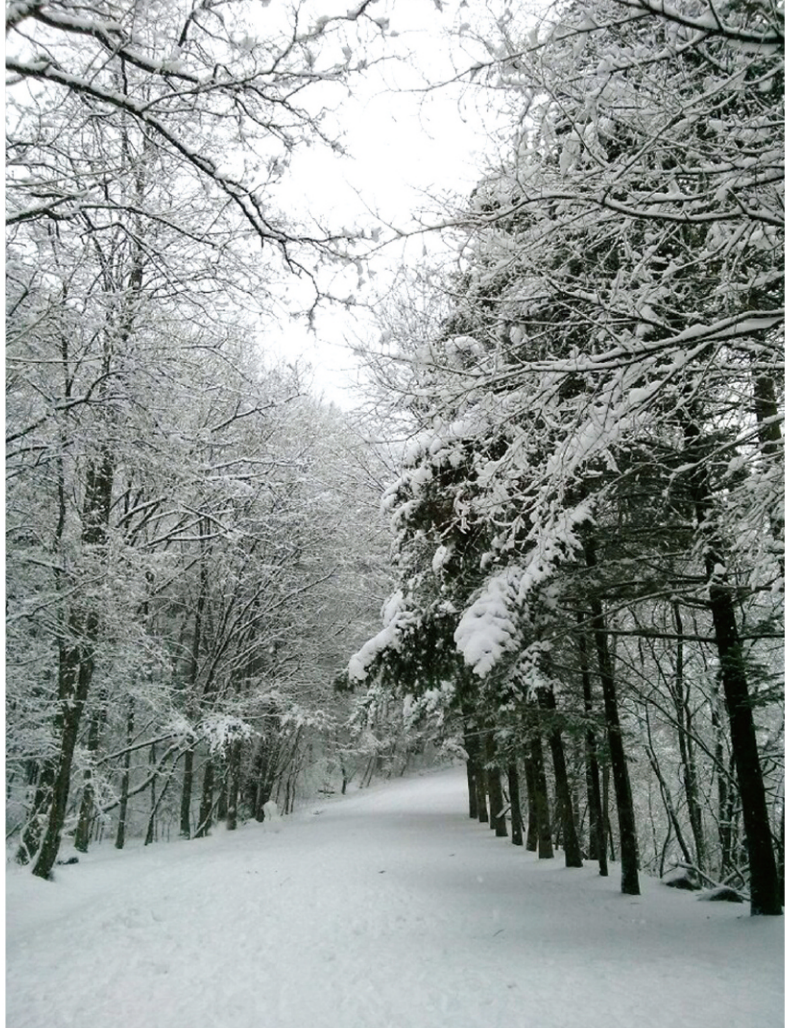
58

삼양대관령목장

삼양대관령목장은 동양 최대 초지목장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 남한 전체 면적의 5,000분의 1 규모를 자랑한다. 젖소와 육우, 한우를 포함해 총 사육두수가 900마리에 이르며 광장에서 정상인 동해전망대(1140m)까지 거리는 4.5km로 이 구간 안에 양 방목지, 소 방목지, 타조 사육지, 연애소설나무 쉼터, 산책이 가능한 목책로 5개 구간을 비롯해 곳곳에 풍력발전기(총 53기)가 준비하게 늘어서 있다. 알프스를 연상시키는 이색적인 풍경으로 명성이 높다.

오대산국립공원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그리고 홍천군 일부에 걸쳐 있고 태백산맥의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차령산맥과 교차점에 있다.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오대산은 총 면적 298.5km²으로 1975년 2월 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오대산국립공원에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비롯한 여러 암자가 있으며 희귀 동식물과 약초, 산채가 많은 곳으로 상원사에서 등산로를 따라 월정사 적멸보궁을 지나 주봉인 비로봉까지 오를 수 있다. 오대(남대, 북대, 동대서대, 중대)가 있어 오대산이라고 하며 또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노인봉을 합쳐 오대산이라고도 한다.



월정사 & 템플스테이

월정사 초입에는 1km 남짓 이어지는 전나무 숲이 늘어서 있다. 수령 500년을 넘긴 전나무들이 씨를 퍼뜨려 숲을 이룬 것이라고 하니 과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월정사는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하다. 스님들의 일상과 새벽예불, 참선수행, 발우공양, 다도 등 기본적인 수행생활을 체험하고, 불교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자연 속의 삶을 체험한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불교문화체험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관조할 수 있으며, 천년의 숲을 걸으며 마음을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월정사 템플스테이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대관령 하늘목장

대관령 하늘목장은 훼손되지 않은 고산지 생태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특징이다. 1974년 설립되어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 500개에 달하는 약 1,000만㎡ 규모의 거대한 목장이다. 현재 약 400여 두의 홀스타인 젖소와 100여 두의 한우를 친환경적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1,400톤에 달하는 1등급 원유와 대관령 청정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인공적인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 그대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 순응형 체험목장으로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교감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60

평창의 대표 '겨울축제'

제11회 평창 송어축제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최대 송어양식지인 평창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송어축제가 열린다. 차가운 강바람에 개어울이 얼면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던 옛 모습 그대로 오대천의 송어를 낚아 올리는 맛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알기 힘들다. 낚시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관광객들도 손쉽게 송어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 보다 더 축제를 즐길 준비가 되었다면 맨손송어잡기 체험을 추천한다. 얼음장 같이 찬 물속에 과감히 뛰어 들어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이 이색적인 체험은 참가자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선사한다. 먹거리촌에서 직접 잡은 송어회의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궁금하다면 올 겨울에는 꼭 가족과 함께 송어축제를 방문해 보자.



이용안내

축제기간 _ 2017년 12월 22일(금)~2018년 2월 25일(일)

장소 _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 (진부시외버스터미널 앞)

체험정보 _ 텐트낚시, 얼음낚시, 맨손 송어잡기, 얼음썰매장, 눈썰매장, 얼음카트레이싱, 디스코, 동계스포츠 체험장

이용정보 _ 매표소, 낚시용품점, 먹거리촌

전화번호 _ 033-336-4000

홈페이지 _ <http://www.festival700.or.kr/>



수준급 겨울 레포츠를 즐기다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인만큼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에 최상의 인프라를 갖췄다. 하얀 설원에서의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비롯해 평창의 새로운 레포츠로 떠오른 산악오토바이까지... 최강의 짜릿함을 즐기기에 최고의 도시다.

>>산악오토바이 ATV

산악오토바이 진부체험장

평창의 새로운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은 4륜 산악오토바이(ATV(All Terrain Vehicle))는 난이도에 따라 4개 코스로 체험할 수 있다. 오대천 주위에 평지와 낮은 강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린코스, 해발 1300m의 산정상을 체험할 수 있는 블루코스, 안전요원의 안내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체험을 할 수 있는 블랙코스, 매니아 및 전문 동호회를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상급의 봉산리코스가 있다.



>>스키 & 스노우보드

알펜시아 스키장

스노보더와 가족 스키어에게 특화된 6면의 슬로프를 구성된 이곳은 초·중급자를 위한 1.4km의 슬로프를 제공하여 다이내믹한 스키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스키점프전망대가 있는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는 모노레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스키역사박물관, 18홀 대중제 골프장인 알펜시아 700골프클럽 등을 갖추고 있다.

용평리조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용평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을 비롯해 골프장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종합 휴양지로 명성을 쌓고 있다. 호텔과 콘도 또한 깔끔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까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과 골프장을 비롯해 워터파크, MTB, 수영장, 볼링장 등의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휴양리조트로, 곤돌라를 타고 태기산 산정 몽블랑에 오르면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장엄한 광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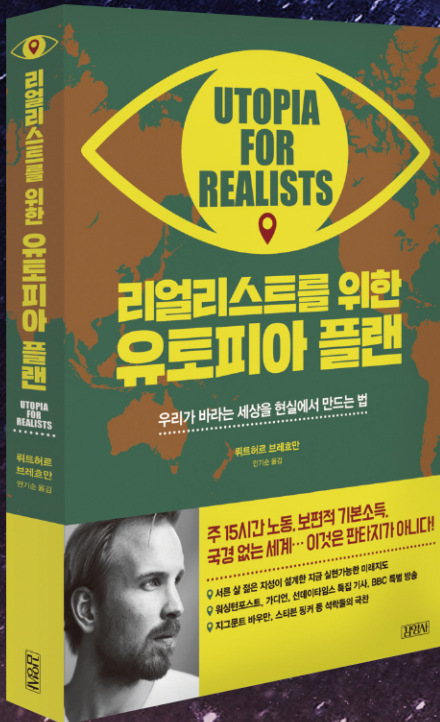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

뤼트허르 브레흐만 지음 |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320쪽

62



자료협조 : 김영사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어쩌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는데도 점점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어쩌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데도 수백만 명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지, 과거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역사학과 진화심리학, 경제학과 사회심리학, 문학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파헤친 문제작이다.

#1. 꿈꾸던 모든 것이 실현된 사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맞다. 적어도 이상향을 꿈꾸던 전통적인 철학자들에게는 말이다. 200년 전에는 94%의 인구가 극빈자였고, 1980년대에는 44%, 현재는 10%만이 극빈자로 구분된다.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는 군주마저도 가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건 배고팠고, 그래서 굶어 죽었으며, 열악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비참하게 살았다. 하지만 수많은 발명과 발견이 이루어진 산업혁명과 함께 1800년대에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중세보다 15배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250배나 성장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 2013년 베스트 논픽션상 수상, 유럽 언론인상 2회 노미네이트, 새롭게 떠오르는 서른 살의 젊은 사상가 튀트허르 브레흐만이 설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지도를 담은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원제: Utopia for Realists)》이 출간되었다. 어쩌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는데도 점점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어쩌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데도 수백만 명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지, 과거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역사학과 진화심리학, 경제학과 사회심리학, 문학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파헤친 문제작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17개국에 판권이 계약되었으며, 파리, 몬트리올, 뉴욕, 더블린, 런던 등에서 강연을 이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스티븐 핑커(“케케묵은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책이 펼치는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지그문트 바우만(“현대 사회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 등 석학들의 극찬을 받았다. 토마스 피케티 이후, 현대의 사회적 구조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방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냈으며, 시대적 비판을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보여주는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실시한 일련의 실험, 캐나다의 한 도시에서 가난을 완전히 근절시킨 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했던 리처드 닉슨 이야기 등 생생한 사례를 접목해 기본소득과 근무시간 축소, 빈곤 퇴치에 관한 유토피아적 사고를 피력하고, 인간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로봇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강력한 해법을 제시한다. ‘노예제도의 종말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시작까지, 모든 이정표는 한때 유토피아적 판타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과 주당 15시간 노동, 국경 없는 세계 같은 새로운 관념들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유토피아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현재가 희망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완성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상과 희망이 살아 있고 꿈틀거리는 세상이다.’”(33쪽)

#2.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람들은 게을러질까?

대공황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30년 여름,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재앙의 벙랑 끝에 서 있던 도시 마드리드에서 과감하게도 직권에 거스르는 예측을 발표했다. 2030년이면 인류가 최대 과제, 즉 무한한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리라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파멸을 초래하는 실수”(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긴축 재정을 펼치는 등)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한 세기 안에 서구의 생활수준은 최소한 1930년대의 네 배로 높아지리라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30년이면 우리는 주당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다.”

위싱턴포스트·가디언·산데이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등 전 세계 언론이 집중 조명한 이 책에서 튀트허르 브레흐만은 왜 인간의 노동 시간은 늘어만 가는데 부의 증가 속도는 1980년대 이전보다 못한 것인지, 왜 연봉과 GDP 기준에 그렇게 심하게 집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준다. 저자가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유토피아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 합리적인 임금, 자신의 인생을 위한 진정한 기회의 발견, 정도의 소박한 것들이다. 또한 기계와 스마트폰 앱, 알고리즘이나 트렌드세터들에 의해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역설한다.

인간은 상당한 양의 여가를 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가족, 공동체 생활, 레크리에이션처럼 자신에게 중요한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생긴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에 자원봉사자와 사회자본이 많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고 저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20시간이나 30시간으로 갑자기 줄이자고 주창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정치적 이상으로 복귀시켜야 함을 지적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더욱 유연한 정년 제도를 발달시키고, 남성의 육아휴직과 보육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동감 넘치는 일화들과 성공 스토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낸다.

3. 일정한 금액을 보장받으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민주주의는 훌륭한 유토피아처럼 보였다. 철학자 플라톤부터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까지, 수많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민주주의는 헛되고(대중은 너무 어리석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위험하고(대다수의 규칙이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비슷하다), 사악하다고(공공 이익은 일부 교활한 대중의 이익 때문에 이내 부패한다)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에 견주어보면, 기본소득은 정부가 지불할 수 없으므로 헛되고, 수혜자들이 일을 그만둘 것이므로 위험하고, 결국 소수가 다수를 부양하려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므로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잠시 저자의 생각을 살펴보자.

헛될까? 경제학자 맷 브뤼니히는 불과 1,750억 달러면 미국에서 가난을 근절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 금액은 미국이 소비하는 군사비의 약 4분의 1이다. 하버드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에 자그마치 4~6조 달러를 썼다고 추산했다.(53쪽)

위험할까? 기본소득이 부여하는 특권 중 하나는 빈곤층을 복지의 덩어리에서 해방시켜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잡아 유급 직업을 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받을 뿐 아니라 유급 직업을 구하더라도 빼앗기거나 줄어들지 않으므로 빈곤층의 경제 상황은 향상된다.(54쪽)

사악할까? 통제와 굴욕이라는 사악한 괴물에게 빈곤층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복지제도이다. 관리들은 페이스북을 사용해 공공 부조 수혜자를 주시하면서 지원금을 현명하게 쓰는지 감시한다.(55쪽)

64

기본소득 개념에 급작스럽게 호응이 쏟아진 계기는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 실시된 국민투표였다.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반대해서 제안은 부결되었다. 하지만 1959년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유토피아적 제안에 반대한 남성이 훨씬 많았으나 1971년 다시 투표를 실시했을 때는 대부분의 남성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본소득 운동을 촉발시켜 미스터 기본소득이라 불리는 저자는 “스위스 국민투표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의 결말이 아니라 시작”(268쪽)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국경 없는 세상을 제안한다. 100년 전만 해도 세계는 개방되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스파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국내에 가둘 목적으로 국경이 봉쇄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경을 개방했을 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평이하지만 강하고 날카롭게 특유의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적재적소의 풍자와 유머, 시와 문학적 표현을 써가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보이는 이 책은 좌우의 분열을 넘어 상상과 희망이 살아 있고 꿈틀거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책 속 명구절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에 따르면, 인간은 풍요의 땅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한 번 머나먼 수평선에 시선을 고정하고 닳을 끌어 올려 항해를 떠나야 한다. 와일드는 “진보는 유토피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저 멀리 수평선은 텅 비었고 풍요의 땅은 안개에 싸여 있다. 우리는 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유토피아를 매장시켰다. 여태껏 누려온 것보다 나은 세계를 상상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꾸어온 꿈을 대체할 새 꿈이 없다. 실제로 부유한 국가의 국민은 대부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지 못하리라 확신한다.(23쪽)

세상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경력 초기에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항우울제를 상용한다. 사회는 실업과 불만, 우울증 같은 집단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 탓이라고 거듭 비난한다. 성공이 선택이라면 실패도 선택이다. 일자리를 잃었는가? 더욱 열심히 일했어야 했다. 몸이 아픈가? 건강한 생활방식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불행한가? 악을 복용하라.(30쪽)

자본주의가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은 확실하지만 자본주의만으로는 풍요의 땅을 유지할 수 없다. 진보는 경제 번영과 동의어로 여겨지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난제가 있다. 서구의 청년은 무정치적 테크노크라시 시대에서 대부분 성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시 정치로 돌아가 새 유토피아를 찾아야 한다.(31쪽)

이제 유토피아적 사고로 돌아갈 때다. 우리에게 새 북극성이 필요하고, 지도에 없는 머나먼 대륙인 유토피아를 포함한 새 세계지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 광신자들이 신권정치나 5년 계획 등을 도구처럼 휘두르며 억지로 떠맡기는 엄격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열렬한 꿈에 우리를 종속시킬 뿐이다. 유토피아utopia는 “좋은 장소”와 “없는 장소”를 동시에 가리킨다.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안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 관점은 복수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유토피아 개념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생명선이다.(32쪽)

이상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나는 늘 가슴이 설렌다. 프로이센 정치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워싱턴과 웨스트민스터 등에서 나오는 뉴스를 추적해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형태의 정치가 존재한다. 이것은 대정치Politics로서 규칙이 아니라 혁명에 관한 정치이다. 가능성의 예술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예술에 관한 정치이다.(259쪽)

KSOC 아젠다 2020!



대한체육회

‘KSOC 아젠다 2020’은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지 100년이 되는 2020년을 앞두고 체육발전의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 100년 이정표를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체육회”라는 비전과 함께 5대 목표, 20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운영 계획과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주요 골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40년까지 완전한 재정자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표어 아래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전문선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기초종목에 있어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뒤처지고 있다. 비인기종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운동 안 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하는 선수’로 양극화되어 왔다.

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소외계층들에게는 스포츠 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 보급해야 한다. 연간 1만 명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체육계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건강한 스포츠생태계를 갖춰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려면 제도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과감하게 배분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체육증가’ 대한체육회에 확대하여 정률 배분하고 재정자립하는 것이 방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가 개선되면 NOC(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추가재정 확보로 체육선진화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스포츠산업 발전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체육정책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독자적인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 체육단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스포츠선진국의 조건 중 하나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복지시대 구현을 위해 체육인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



부산시민이 만든

부산시민 11가지 건강생활 수칙



식사는 싱겁게, 골고루, 천천히 먹습니다.



술은 3잔 이하로 마시고, 권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말고 피하며,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3회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예방접종은 미루지 않습니다.



손씻기와 양치질은 잘하고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족(친지, 지인)과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내가 먼저 이웃과 웃으며 인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건강프로그램과 건강한 정책 만들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일주일에 세번이상 하루30분

스포츠733으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말 테마파크
렛츠런 парк 부산경남

슈퍼히어로급 정말~ 테마파크가 온다



우리가족 말테마파크 렛츠런으로 렛츠고~



사계절 썰매장
슬레드힐



어린이를 위한
승마 체험장



자연체험 학습장
토마의 정원



승마와 즐기는 캠핑
마글램핑장



빛 테마파크
일루미아

Lets Run PARK 부산경남

가락 IC인근 | 대표전화 1566-3333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매년 2,000여억 원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지방세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마관구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ARKLAND

모든 비즈니스에
트렌디한 스타일로 답하다

파크랜드 비즈니스 자켓

진중함이 필요한 순간, 비즈니스의 품격은 높이고

여유를 즐기는 순간, 편안한 움직임을 살려주는

파크랜드 비즈니스 자켓.

파크랜드만의 돋보이는 스타일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콜핑이
추운 겨울
을 따뜻하게
해준다

K[®]
KOLPING

가벼움으로 완벽해지다

콜핑 하이브리드 경량 패딩



제퍼슨 KOJ6668M/W

웬라이트 소재로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더 가볍고
발열, 항균 기능으로 더 따뜻해지다



콜핑 전속모델
서현진



세계 최대규모의 —
역사적인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 시작됩니다

BUSAN WORLD EXPO 2030